

민주노총 광주본부 하남산단에 둥지트나... 입주기업들 예의주시

시, 사무실 임대료 내년 예산 제외...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 광주 최대 산단 입주기업 1000여곳 ... 사업장 노사갈등 촉발 불안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광주 본부의 하남산업단지 이전이 결정되면서 지역 경제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입주기업만 1000여곳에 달하는 광주 최대 산업 단지인 하남산단에 민주노총이 입주하면서 자칫 사업장의 노사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최근 노사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사업장의 노동 조합이 대부분 민주노총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도 기업인들의 우려를 낳게 하는 대목이다.

18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광주시가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입주해있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실을 최근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

갑작스러운 이전은 광주시가 지난 2003년부터 지원해왔던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실 임대료 5500만원을 내년부부터 지급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과 관련된 내용 제출을 요구 받은 광주

시가 이 같은 임대료 지원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내년 예산 편성에서 제외한 것이다.

광주시는 임대료를 지원할 수 없게 되자 시 소유 건물에 민주노총 광주본부를 이전하기로 하고 장소를 물색한 끝에 하남산업단지 내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역경제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주 최대 산업단지인 하남산단에 민주노총이 둥지를 틀게 될 경우 그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하남산단 1000여개 기업 중 민주노총에 소속된 노조는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노동조합은 결성되었지만, 상급단체에 아직 가입을 안 한 곳이 48곳 정도다. 기업인들은 민주노총이 하남산단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민주노총을 상급단체로 두려는 노동조합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하남산단 내 한 기업 대표는 "광주시가 왜 하필 하남산단으로 민주노총 광주본부 사무실을 결정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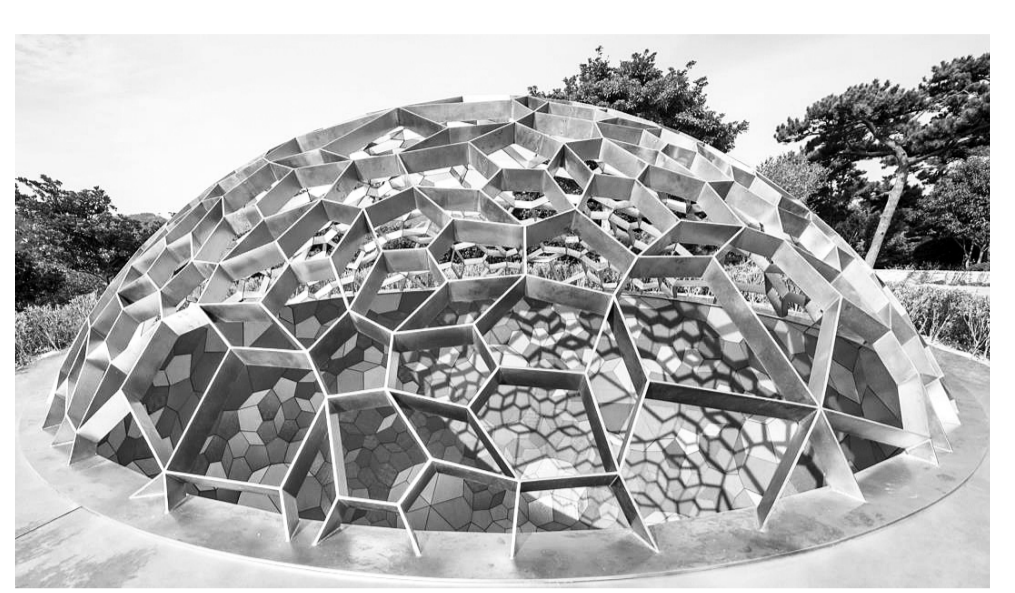
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매출도 줄었는데,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경영자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아무래도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산단 내에 입주하게 되면 주변 기업 노동자들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현재 외국인 노동자의 언어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열리는 복지관 시설을 민주노총 사무실로 내어준다는 것에 우려감을 표하는 기업인도 상당하다.

일각에서는 광주시가 20년 넘게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가 임대인과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분기별로 임대료를 지급해왔는데, 2003년부터 올해까지 21년간 지원한 예산만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시 조례를 근거로 오랜기간 임대료를 지원해온 것으로 안다"며 "감사원 결과는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안에는 민주노총 임대료 지원 금액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올라퍼 엘리아스 작 '숨결의 지구'

신안 도초도서 '숨결의 지구' 만나다

덴마크 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스 작품 설치... '1점1뮤지엄' 첫번째

신안 도초도에 덴마크 출신 세계적인 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스의 작품이 설치돼 화제다.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올라퍼 엘리아스의 '숨결의 지구' (Breathing earth sphere)가 수국의 섬으로 알려진 도초도에 설치됐다.

섬의 생태와 자연환경이 작품과 어우러져 '대지의 미술관'이라는 명칭이 부여됐다. 당초 대지미술은 자연을 소재로 활용해 창조된 작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1960년대 후반 영국을 비롯해 독일, 미국 등지에서 시작됐다.

이번 작품은 신안군 정척인 '1점 1뮤지엄' 일환으로 기획됐으며 세계적인 예술가가 참여한 작품 가운데 첫 번째다. 계획에서 설치까지 6년이 걸렸으며 사업비는 47억 원이 투입됐다.

작품은 직경 8m 공 모양 구조물로 붉은색, 녹색, 정록색 타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간 내 입체감과 역동성을 감안해 설계됐으며 햇빛을 반사할 시 찬란한 색깔을 선사한다.

강형기 총괄기획자는 "장소와 특성을 살리고 현대적 기법을 활용, 국제적으로 통할 만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작가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올라퍼 엘리아스를 선택했다"며 "위치 선정은 주변 340만평 들판에 둘러싸인 봉우리 주변의 경관농업과 예술이 한 데 어우러지는 최적지"라고 전했다.

박우량 군수는 "첫 번째 작품은 인내의 도전이었다. 세계적인 작가들이 생각하는 기준은 높고 지역에서 그 기준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런 모든 과정을 인내한 끝에 '숨결의 지구'라는 첫 번째 작품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한편 신안군 '1점 1뮤지엄' 프로젝트는 총 27개소로 조성 완료 17개소, 추진 중인 곳 10개소다. 특히 세계적인 작가와 추진 중인 곳은 4개소로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여수·화순·영암·장성 선정

300억원 예산 지원... 지역 경쟁력 강화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

여수·화순·영암·장성이 전남도의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에 선정돼 30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성장 동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는 중앙 공모에 만 의존했던 지역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자치율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며 전남도가 지원하는 대규모 발전 프로젝트다.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면서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소당 총사업비 300억 규모로 도비 60~70%를 지원한다. 300억 원 초과분은 시·군에서 부담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여수시의 '여수로 섬-잇(Sum-it) 트레일', 화순군의 '한국산 산업화단지 조성사업', 영암군의 '전남 대표 케이-컬처(K-

Culture)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의 재도약 프로젝트', 장성군의 '장성 원더랜드(Wonderland) 프로젝트' 등 4개다.

전남도는 오는 2025년부터 4~5년 12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여수시와 화순군은 2025년부터 착수, 영암군과 장성군 사업은 2026년부터 착수한다.

전남도는 17개 시·군의 신청사업을 관광·농업·산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통해 9개 사업을 우선 선정할 후 2차 발표, 현장평가, 균형발전도 등을 종합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여수로 섬-잇(Sum-it) 트레일' 사업은 여수만흥동 일대에 바다레일바이크, 마래일랜드(스카이워크 등)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화순군 한국산 산업화단지 조성사업'은 이양면

일대에 나초 미래산업육성센터, 난 갤러리, 난 테라리움 카페, 난 유통복합센터, 난 연구관 등을 설치, 수입 난 시장을 대체하고 농가 소득 창출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전남 대표 K-Culture 지역 육성, 영암 헤리티지의 재도약 프로젝트'는 구림마을을 중심으로 특화지역을 활용, 한옥 등 전통문화 전문교육공간, 수제맥주 팝업스토어, 구림 스테이 등을 추진해 남도 역사문화 대표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장성 원더랜드(Wonderland) 프로젝트'는 장성호 관광지에 숙박 공간, 어린이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특산물판매장 등 관광·문화·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의 강점인 문화·관광자원 개발과 농업 분야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사업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김정은 "핵무력 한계없이 강화...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집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을 한계 없이 강화하고 전쟁준비 완성에 총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15일 평양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이틀차 행사에서 '조성된 정세와 공화국무력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들의 임무에 대하여'를 주제로 연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되자 오며 이 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역세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한미일 군사협력이 평화와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 요소라며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은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유엔이 아니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이 미 대선 뒤 미국을 향해 원론적이기는 하지만 직접 비판 목소리를 낸 건 처음이다. 이번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는 지난 2014년 11월 3차 대회 이후 10년 만에 열린 것이다. /연합뉴스

군, 초급간부 기본급 월 200만원 이상 추진... 6.6% 인상 목표

국방부가 병사 월 소득에 이어 초급간부 기본급을 최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18일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엔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초급 간부 소득은 병장 월 소득 200만 원과 비교되면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아울러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이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 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임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자본감소 최고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4년 11월 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자본의 총액 금650,000,000원을 금26,00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발행주식총수 48,000주 중 46,080주를 무상강제소각하고 발행 주식총수 48,000주를 1,920주로 감소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 익일부 1개월 이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주권을 가진 주주와 질권자에서도 위 기간내에 구주권을 당 회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주식회사 대도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림길 45(임곡동) 사내이사 김용재

72년을 밝힌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통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양 222-0171
• 양 신 571-7658 • 오 치 266-7801
• 용 통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0054
• 동 부 225-6001 • 중 양 222-0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은 951-1833
• 북 신 673-6836 • 상 호 675-6605
• 진 광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온 천 376-7153
• 치 평 376-0511 • 용 알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공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단 944-0444